

# 대중문화로서 국내 힙합 패션 트렌드에 관한 연구

## - 2000년대 이후 사례를 중심으로 -

김 윤

노스페이스 코리아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 하위문화로 발생하여 현재 글로벌 대중문화로 성장한 힙합의 발생과 특징을 국내외를 통하여 살펴보고, 발생 이후 꾸준히 발전되어온 힙합 패션의 시기적 변화, 특징의 분석과 함께 2000년대 이후의 국내 힙합 패션을 국외 힙합 트렌드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로서 국내외 관련 서적과 논문 등의 선행 연구 자료를 토대로 분류, 분석하고 2000년대 이후부터 현 시점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인 점을 감안, 국내외 인터넷과 신문, 잡지와 같은 보도 자료, 유명 힙합 문화, 힙합 전문 스토어 웹사이트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국내외 관련 뮤지션들과 패션 브랜드들에 대한 조사 및 다양한 매체에서 보이는 힙합 관련 사진 자료들을 수집 조사하였다. 다원화되는 문화 요소들의 변화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는 국내 힙합 패션의 새로운 주제 접근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국내 힙합 패션을 분석한 결과 프리프합, 슬림 포멀 수트, 스트리트 캐주얼 힙합, 세미 힙합의 4가지 트렌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리프합'은 힙합의 감성과 힙합 스타일에 프리피 룩을 믹스 앤드 매치한 스타일이다. 둘째, '슬림 포멀 수트'는 대체적으로 블랙과 화이트 모노톤의 세련된 슬림 포멀 수트에 중절모나 안경, 선글라스와 같은 액세서리를 착용하며 모던함과 심플한 힙합 스타일을 연출한다. 셋째, '스트리트 캐주얼 힙합'은 국내의 경우 스트리트 얼반 캐주얼에 가까운 스타일을 보여주는 스트리트 캐주얼 힙합 스타일을 추구한다. 넷째, '세미 힙합'은 힙합의 기본 스타일은 살리면서 대중화되고 세련된 빈티지 캐주얼을 보이며, 세계적 트렌드인 고트, 타투 이미지의 그래픽 프린트를 많이 사용한다. 2000년대 이후 국내 힙합 패션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슬리머 실루엣으로의 전환과 함께 더 이상 하위문화로서의 저항적인 패션이 아닌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주제어: 힙합 패션, 프리프 합, 슬림 포멀 수트, 스트리트 캐주얼 힙합, 세미 힙합

## I. 서론

인터넷과 많은 대중 매체들을 통하여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빠르게 대중화된 힙합(hip hop)은 1970년대 미국 뉴욕(New York)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하위문화였으나, 현재에는 음악과 패션, 미술 등의 다양한 문화 장르에서 다원화된 특성으로 글로벌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대표적 대중문화이다. 힙합 패션은 힙합 음악의 영향을 받은 미국 아프로 아메리칸(Afro-American)들의 패션에서부터 발생하였고, 사회로부터 받은 소외에 대한 저항, 부조리에 대한 내면의식, 일탈과 같은 특성과 결합, 발전되었으나 현재에는 대중음악으로 자리 잡은 힙합, 대중적인 트렌드,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는 여러 문화 현상과 함께 결합하며 대중 패션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다양한 매체 속 뮤지션들의 패션을 통한 힙합 패션의 지속적인 발전은 그들 스타일의 모방과 재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며, 의미와 가치를 재생산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 하위문화로 발생하여 현재 대표적인 글로벌 대중문화로 성장한 힙합의 발생과 특징을 국내외를 통하여 살펴보고, 발생 이후 꾸준히 발전되어온 힙합 패션의 시기별 변화, 특징의 분석과 함께 트렌드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며 개성 있게 변화하고 있는 2000년대 이후의 국내 힙합 패션을 국외 힙합 트렌드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데 있다. 힙합 패션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은 김서연 외(2001)<sup>1)</sup>의 연구와 같이 힙합의 분류와 함께 2000년대 이전 힙합 발생 전성기에 국한되어 있거나, 이인성 외(2006)<sup>2)</sup>의 연구와 같이 힙합 발생 이후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힙합 패션의 분류에 국한되어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와 패션 흐름 속에서 2000년대 이후 급변하고 세분화된 국내외 힙합 패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중문화 속에서 매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힙합 패션 트렌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대중문화 속에서 힙합이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힙합 패션이 발전되고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향후 힙합 패션 트렌드 예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로서 국내외의 관련 서적과 논문 등의 선행 연구 자료를 토대로 분류, 분석하고 2000년대 이후부터 현 시점까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인 점을 감안하여 국내외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과 신문, 잡지와 같은 보도 자료와 국내외 유명 힙합 문화, 힙합 전문 스토어 웹사이트 등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힙합이 대중 패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외 관련 패션 뮤지션들과 패션 브랜드들에 대한 조사 및 다양한 매체에서 보이는 힙합 관련 사진 자료들을 수집 조사하였다. 시대적 흐름, 다원화되는 문화 요소들의 변화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는 국내 힙합 패션의 새로운 주제 접근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 II. 힙합의 특성과 패션

1970년대 뉴욕 빈민가에서부터 시작한 힙합은 현재에 이르러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여러 양식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현대 문화의 특징이 잘 반영된 대표적인 문화이다. 힙합 문화 속 힙합 패션은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매우 빠른 속도로 대중화를 이루었으며, 거대 패션산업의 일환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본장에서는 거대 힙합 문화의 형성과 대중화를 통하여 발전하고 대중들에게 다양한 스타일로 수용된 힙합 패션을 2000년대 이전, 이후로 나누어서 시대적 대표 힙합 패션 트렌드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힙합의 형성과 대중화

힙합은 현 시대에 있어서 하나의 음악적 장르이자 표현의 형식, 예술적 하위문화로 정의 내리기에는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문화적 영향력을 강하게 지닌 대표적 글로벌 대중문화가 되었다. 하위문화에서 시작한 힙합은 그들만의 지배적 가치 체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이탈된 현상으로 생성되고 나타났으며,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스타일 속에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철학가이자 디제이(DJ), 엠씨(MC)인 케이알에스 원(KRS-One)이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문화’로 힙합을 일컬은 것처럼, 힙합은 1970년대 힙합 음악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1980년대 이후 힙합 음악의 세계적 유행과 함께 그들만이 지니는 독특한 특징들이 결합된 하위문화로써, 다양한 사회 문화적 경계들을 초월한 세계적 문화 현상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형성, 성장되어 온 힙합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인종과 지역에 따른 여러 가지 문화적 특수성을 혼합한 다문화적(multicultural) 혹은 초문화적(transcultural)<sup>3)</sup>인 특성을 가지며, 포괄적인 현대 문화요소들을 흡수, 혼합하여 대중문화로서 다면적인 성격들이 공존하는 뚜렷한 문화적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1973년 뉴욕 브롱스(Bronx) 남부에서 디제이 쿨허크(DJ Kool Herc)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힙합은 도시에 사는(urban), 젊은(young), 노동자계층(working-class) 아프로 아메리칸들의 음악<sup>4)</sup>으로 시작하였으며 문화 현상으로 발전하였다. 힙합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1980년대 힙합의 초기 발전, 전파자인 디제이 아프리카 밤바타(Afrika Bambaataa)는 힙합을 엠씨(MCcing), 디제이(DJing), 브레이킹(breaking), 그래피티 라이팅(graffiti writing), 지식(knowledge)으로 분류하였으며,<sup>5)</sup> 티 론(T. Ron)은 그래피티

(graffiti), 브루스 리(Bruce Lee), 랩(rap), 브레이킹 댄싱(breaking dancing), 테크놀로지(technology)로, 아이 오슌(I. Oshun)은 디제이(DJing), 브레이크 댄스(break dance), 랩, 그래피티, 기어(gear)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나,<sup>6)</sup>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댄싱(break dancing)의 비보잉(B-boying), 그래피티 라이팅, 디제이, 그리고 랩핑(rapping)으로 통하는 엠씨(MCcing)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미국 동부에서 시작한 힙합문화는 1980년대 미국 서부 L.A.를 중심으로 발전하며 미국의 문화로 자리잡기 시작한다. 이 시기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힙합 뮤지션들이 대거 등장하였는데, 이 중에는 사이프러스 힐(Cypress Hill), 팻 조이(Fat Joe)와 같은 라틴인, 서울 브라더스(Seoul Brothers), 아시아틱 에이포스틀스(Asiatic Apostles)와 같은 아시아인들도 포함되어 있다.<sup>7)</sup> 1990년대 전후로 힙합은 더 이상 아프로 아메리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저항성 비주류의 자생적 하위문화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새로운 주류문화로 편입되기 시작하였고, 좀 더 광범위한 문화적 현상의 중심이 되었다.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MTV 방송과 90년대 성행한 뮤직비디오는 음악의 한 장르에서 시작한 힙합을 결과적으로 춤, 미술, 의복 등의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혼합된 독자적인 문화 영역으로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2000년대 전후 힙합은 다양한 변화와 세분화를 가지게 되는데, 이 중 얼터너티브 힙합(alternative hip hop)은 정통 힙합 음악이 좀 더 대중적으로 변모 진화한 형태로서, 강한 랩 위주의 음악에서 벗어나 팝음악(pop music)과의 결합에 중점을 둔 새로운 개념의 힙합 음악<sup>8)</sup>으로 힙합의 대중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노스이스턴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Eastern) 머레이 포먼(Murray Forman) 교수는 “힙합은 여러 지역에서 발전, 확산되는 과정에서 기존 정의를 뛰어넘고 있다<sup>9)</sup>”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힙합문화가 빠른 변화속도와 함께 다면화를 가지고 대중화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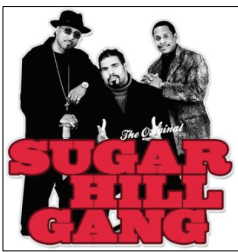
는 문화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최근 힙합은 다양한 문화 측면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대중문화와 밀착되어 전파되고 있으며, 이 중 힙합 음악과 힙합 패션분야를 주도하며 발전하고 있다.

하위문화가 주류문화로 편입되고 산업화와 대중화를 통해 대중적 주류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최단기간 넓은 범위로 확산된 힙합은 대중문화로서의 다수 개념과 유행이란 개념 모두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초기 힙합의 발생은 하위문화 속 음악, 패션, 댄스, 미술, 그래피티 등에서 시작하였으나, 현재에는 신세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대중문화 속에서 라이프스타일로의 확장을 이루고 있다.

## 2. 2000년대 이전의 힙합 패션

1970-80년대 중반의 힙합 패션은 강한 아프로 아메리칸의 영향과 함께 아디다스의 셸 토 스니커즈(shell toes sneaker), 커다란 안경, 금반지, 목걸이의 착용으로 스타일 되어졌다. 이 시기는 올드 스

쿨(old school) 힙합으로 시기적 구분을 가지는데, 힙합 발생지인 뉴욕을 기점으로 한 아프로 아메리칸 중심의 레게와 스포티브(sportive) 스타일이 혼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하위문화 음악의 영향을 받으며 뉴욕시 거리 패션에서부터 시작된 힙합 패션은 힙합 뮤지션 슈가힐 갱(Sugarhill Gang)의 ‘랩퍼의 기쁨(Rapper’s Delight)’이라는 음악이 힙합 싱글 음반 최초로 음악순위 탑(top) 40에 랭크되면서 인기를 얻게 된다<그림 1>. 80년대 미국 전역에서의 뮤직비디오 채널 유행, 84년 런 디엠씨(Run-DMC)의 엠티비 방송으로 힙합 랩뮤직의 세계화와 힙합패션의 글로벌화가 시작되며,<sup>10)</sup> 힙합패션은 아프로 아메리칸 내 하위문화 속 패션에서 트렌디한 패션 스타일로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림 2>, <그림 3>과 같이 간소화된 트랙슈트, 라벨이 붙은 후드 티셔츠, 스니커즈<그림 4> 등으로 대표되며, 그룹 런 디엠씨가 항상 입던 옷과 슈즈에 찍힌 아디다스 상표는 이를 계기로 세계적 스포츠웨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11)</sup> 1980년대 후반의 힙합 패션을 주도 하였던 뮤지션 엠씨 해머(MC Hammer)<그림 5>는



<그림 1> 그룹 슈가힐 갱, 1979년  
(출처: <http://www.google.com/imgres>)



<그림 2> 그룹 런 디엠씨의 아디다스 가족 트랙슈트, 1988년  
(출처: <http://sneakernews.com>)



<그림 3> 런 디엠씨, 1988년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File:Rundmc\\_2.jpg](http://en.wikipedia.org/wiki/File:Rundmc_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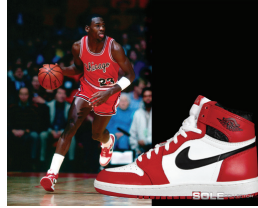
<그림 4> 아디다스 스니커즈, 브룩클린, 자멜 샤바즈, 1985년  
(출처: <http://www.mcnyc.org/popups/exhibition>)



<그림 5> 엠씨 해머, 1988년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



<그림 6> 청크 테일러스, 1917년  
(출처: <http://en.wikipedia.org>)



<그림 7> 나이키와 마이클 조던, 1995년  
(출처: <http://image.google.com>)



<그림 8> 션 콤브스, 마크 바티스트, 1984년 (출처: <http://www.mcny.org/popups/exhibition>)

블라우징되는 배기팬츠(baggy pants)와 어깨가 넓은 더블 브레스트(double breasted) 수트를 힙합 패션 트렌드로 이끌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힙합 패션은 키든 플레이(Kid'n Play), 레프트 아이 어브티엘씨(Left Eye of TLC)와 같은 랩퍼들의 영향으로 매우 밝은 컬러의 스포티한 의류, 야구모자, 클락스(Clarks) 신발, 닥터 마틴즈(Dr. Martens) 부츠가 주된 패션 아이템이었으며, 80년대 후반은 엔더블유 에이(N.W.A)의 디키스(dickies) 팬츠, 플레이드(plaid) 셔츠와 자켓, 청크 테일러스(chuck taylors) 스니커즈<그림 6>, 블랙 라이더스 스타터티(black raiders starter) 재킷과 야구 모자가 크게 유행하였다.<sup>12)</sup> 스포츠 스타일 힙합의 유행과 함께 나이키(Nike)는 1984년 당시 슈퍼스타인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을 에어 조던(Air Jordan) 슬로건과 함께 상품과 이미지에 영입하여 스포츠 의류 및 용품 산업 시장의 경쟁 브랜드인 아디다스를 제치는 계기를 확보하였고<그림 7>,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도시적 스포츠 스트리트 웨어(urban sport street-wear)와 스니커즈(sneakers)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자리에 위치하였다.<sup>13)</sup> 이 시기의 힙합 패션은 뉴 스쿨(new school) 힙합으로 시기적 구분을 가지며, 다양한 인종의 힙합 가수들이 성공과 함께, 그들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 혹은 인종적 다양성이 힙합 패션에 반영되어 다양화되고 대중화되는 힙합 패션을 가진다.

1990년대 초반 이스트 코스트의 힙합 패션은 1930~1940년대 갱스터스(gangsters)의 영향을 받았

으며, 많은 힙합 래퍼들은 보올러 햇(bowler hat),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 실크 셔츠, 악어가죽 구두 같은 갱스터 룩의 힙합 패션을 추구하였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슬리머 핏(slimmer fit)과 함께 보여지는 션 콤브스(Sean Combs, 후에 Sean John으로 개명, 예명: Diddy)의 <그림 8> 슬림 핏 수트(slim fit suit)의 기원이기도 하다. 1990년대는 힙합 패션이 패션산업의 큰 비즈니스로써 자리매김 하는 터닝포인트 시점으로 힙합은 패션업계와의 협업을 통하여 상업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미 1980년대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상업적 마케팅으로 힙합과 패션의 연계에 성공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가 주목받는 이유는 힙합 뮤지션들 스스로가 자신의 음악적 특성을 표현하는 자신들의 의류 브랜드를 런칭, 비즈니스로의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젊은 아프로 아메리칸을 타겟으로 하여 힙합 커뮤니티와 힙합의 미학을 중심으로 런칭한 데이몬드(Daymond John)의 후부(Fubu), 러셀 시몬(Russell Simmon)의 팻 팜(Phat Farm)은 이 시기 대표적인 디자이너 힙합 브랜드로 힙합 음악을 통한 마케팅과 미디어 기술을 이용하여 성장하였다. 1995년 제일모직의 투자로 설립된 브랜드 후부는 당시 최고의 힙합 뮤지션 엘 엘 쿨 제이(L L Cool J)를 브랜드의 아이콘으로 전면에 세우면서 브랜드 협업을 이룬 힙합 패션 세계화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으며, 뮤지션 제이 지(Jay-Z)가 데이몬(Damon Dash)과 함께 1995년 설립한 라커 웨어(Roca wear)<그림 9>, 뮤지션이자 배드 보이

(bad boy)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퍼프 대디(Puff Daddy)가 1998년 설립한 션 존(Sean John)의 경우 현재까지도 꾸준한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시기 힙합 뮤지션들이 힙합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대표적인 힙합 패션 브랜드로는 우탕 클란(Wu-Tang Clan)의 우-웨어(Wu-wear), 러셀 시몬(Russell Simmons)의 팻 팜, 키모라 리 시몬(Kimora Lee Simmons)의 베이비 팻(Baby Phat), 션 콤브스의 션 존, 넬리(Nelly)의 애플 바텀스(Apple Bottoms), 제이 지의 라커 웨어, 50 센트의 지 유닛(G-Unit), 에미넴(Eminem)의 새디 리미티드(Shady Limited), 2팩의 마카벨리(Makaveli)가 있다. 이 외에도 에코 언리미티드(Ecko Unlimited), 칼 카니(Karl Kani), 메카 유에스에이(Mecca USA), 러그즈(Lugz), 할푸츠(Harpuz), 에니체(Enyce)<그림 10>, 보스 진즈(Boss Jeans), 베이프(A Bathing Ape:bape), 빌리언네이르 보이즈 클럽, 빈즈, 스타터 클럽, 엘알지(LRG), 아카데미믹스(Akademiks), 사우스폴(South Pole) 등의 힙합 브랜드들이 1990년대에 설립되었다.



<그림 9> 라커 웨어 홈페이지, 2011년  
(출처: <http://rocawear.com>)



<그림 10> 에니체 홈페이지, 2010년  
(출처: <http://www.google.com/imgres>)

### 3. 2000년대 이후의 힙합 패션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미디어 매체의 급속한 발전과 더욱 활발해진 글로벌화는 대중문화 다원화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패션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 힙합 패션 또한 예외는 아니며 여러 타 문화들과의 접목을 빠르고 다양하게 보이며, 기존의 힙합 패션은 힙합 패션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이후 힙합 패션에서 가장 두드러지며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슬리머 실루엣(slimmer silhouette)을 들 수 있다. 힙합 패션의 아이콘과 같은 개념이었던 크고 험렁한 의복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직선적인 슬림 실루엣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대학의 패션학과 교수이자 패션 디자이너인 앤드류 그루브스(Andrew Groves)는 BBC 뉴스 인터뷰에서 “힙합 패션 속에서 사람들은 배기팬츠를 입는 것을 멈추었다.”며 크고 험렁한 힙합 의류가 퇴보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sup>14)</sup> 2000년대 이후 힙합 뮤지션인 카니에 웨스트(Kanye West), 제이 지, 션 콤브스, 컴먼(Common), 뉴 보이즈(New Boyz), 윌 아이 엠(Will.i.am)과 같은 힙합 패션 리더들은 이전보다 타이트한 스타일을 추구하였으며, 이들로 인하여 슬리머 핏은 급속도로 힙합 패션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믹스 앤드 매치(mix & match)의 힙합 패션 스타일이 새롭게 나타나는데, 짧은 길이와 좁은 팔 둘레의 빈티지(vintage) 티셔츠, 슬림한 스킨니(skinny) 데님 팬츠, 버튼다운(button-down) 셔츠, 폴로셔츠, 브이 네크라인의 스웨터, 블레이저와 재킷과 같은 아이템들이 해골(skull/skeleton), 타투(tatto) 모티브와 장식으로 기존 힙합 패션과는 차이를 가지며 힙합 패션의 새로운 특성을 보인다.

슬림한 실루엣의 힙합 패션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스타일 중 하나인 프리프합(pre-hop)



<그림 11> 프리프합, 카니에 웨스트, 2008년  
(출처: <http://www.google.com/imgres>)



<그림 12> 션 존, 2008 F/W 뉴욕 패션쇼  
(출처: <http://www.google.com/search>)



<그림 13> 션 존의 뮤직 비디오, 2008년  
(출처: <http://www.google.com/search>)

은 힙합 감성과 힙합 스타일에 프리피(preppy) 룩의 믹스 매치를 뜻한다. 칼라를 세운 밝은 컬러의 폴로셔츠, 브이 네크라인의 셔츠 또는 스웨터, 자켓, 블레이저 등을 함께 착의하는 것으로 블레이저의 경우 시어서커(seersucker), 린넨(linen), 벨벳(velvet), 마드라스(madras) 등과 같은 각기 다른 소재와 화이트 또는 밝은 팝핑(popping) 컬러, 작은 플레이드가 배열되어 있는 스포츠 캐주얼 자켓으로 많이 나타난다.<sup>15)</sup> 이는 2000년대 이전에는 힙합 패션에서 보기 힘든 아이템들의 조합으로 다각화, 다원화 되어지는 사회 문화 현상에서 힙합 패션의 소재, 컬러, 아이템들의 믹스 앤드 매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슬림하고 세련된 믹스 앤드 매치의 프리프합은 현재 힙합 음악을 선두하는 뮤지션인 카니에 웨스트<그림 11>, 제이 지, 디디(Diddy), 나시르 존스(Nasir Johns) 등에 의해 꾸준한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새롭게 보여지는 또 다른 힙합 패션 스타일로는 슬림한 테일러드 수트(slim tailored suit)가 있다. 미국 힙합 패션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는 뮤지션이자 패션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제이 지와 션 콤브스를 들 수 있다. 이들이 슬림한 수트를 입고 대중들에게 보여질 때 힙합패션을 추구하는 젊은 계층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단지 조금 더 많으면서 성공한 대표적 사례인 제이 지와 션 콤브스로부터 새로운 스타일을 발견하고 모방한다. 특히 션 콤브스의 브랜드인 ‘션 존’은

힙합 패션 남성들을 위한 대표적인 브랜드로 \$35 저지 티셔츠와 같은 스트리트 패션 의류부터 \$4,000 이상의 코트와 포멀 슈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넓게 가지고 있다.<sup>16)</sup> 2003년도 한 해 포멀한 슬림 라인 스트라이프 셔츠에서만 \$200,000의 판매를 기록했으며, 블레이저와 우븐은 현재 브랜드의 주요 판매 아이템이다<그림 12>. 힙합 패션에서 이 두 뮤지션과 함께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뮤직비디오인데, 많은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인기 뮤지션들이 포멀 슈트를 입고 클럽이나 바(bar) 혹은 고가의 차량에서 예쁘고 섹시한 여성과 함께 있는 멋진 장면들을 많이 연출한다<그림 13>. 이러한 뮤직비디오 속 뮤지션들의 의상은 특히 패션 관련 소비가 매우 활발한 25세~30세에 이르는 남성들에게 더욱 감각적 반응을 이끌어내며, 대중 남성들의 힙합 패션 추구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미국의 대중음악과 라이프 잡지인 『바이브(Vibe)』의 패션 담당자 존 무어(John Moore)는 예전 스포츠 스타들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대중 힙합 패션의 방향(저지 티셔츠와 같은 의류)은 힙합 뮤지션들의 패션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표적 아이템으로 수트를 지목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아프로 아메리칸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던 힙합 문화가 이들의 고등 교육과 이로 인하여 파생되어진 높은 수준의 직업 환경으로 인하여 힙합 패션이 점차 소피스티케이티드(sophisticated)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sup>17)</sup>



<그림 14> 브랜드 아이스크림, 2011년  
(출처: <http://www.bbcicecream.com>)



<그림 15> 그룹 N.E.R.D, 2008년  
(출처: <http://warm-sound-aqueous-transmission.blogspot.com>)



<그림 16> 힙합 고트 스타일, 2008년  
(출처: <http://www.emoda.com>)

2000년대 이후 힙합 패션에서 좀 더 혁신적인 룩으로 나타난 스컬번(skurban-skater meets urban)은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스케이터들의 룩과 힙합 패션과의 만남으로 단순한 스케이터들의 룩이 아닌 힙합 혹은 도시화(urban)되어진 독특한 스타일과의 어우러짐이다. 프리프합과는 또 다른 믹스 앤드 매치를 이루는데, 과거 힙합 패션의 오버사이즈 티셔츠보다 짧은 길이의 티셔츠, 매우 밝은 컬러, 반복되는 패턴의 후디, 유명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의 로고 사용, 체인 장식된 지갑, 슬리머 진(그러나 활동성을 위하여 여전히 릴렉스 핏(relaxed fit)을 유지), 디씨(DC) 또는 밴스(Vans)와 같은 브랜드의 스케이터 스니커즈 또는 컬러풀한 스니커즈들과 같은 매우 세심한 코디네이션으로 구성되어 어진다.<sup>18)</sup> 스컬번 룩은 현재 아이스크림(Ice Cream) <그림 14>이라는 스컬번 룩 브랜드를 운영하는 힙합 아티스트 페럴 윌리엄스(Pharrell Williams)가 프로듀서한 그룹 엔이알디(N.E.R.D.) <그림 15>의 랩댄스(Lapdance) 뮤직 비디오(2003년)에서 밝은 컬러 줄무늬 폴로셔츠, 슬림 진, 트럭커 캡(trucker caps), 텡크(Nike의 dunks)슈즈로 구성된 의상을 선보이면서 대중적인 스컬번 룩을 시작하였다.

빈티지 패션을 기본으로 과장되고 강화된 이미지를 강조하는 강한 컨셉의 힙합 고트(hip hop goth) 패션은 주로 프린트 기법을 사용한다. <그림 16>과 같은 그런지(grunge), 해골, 악마 등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매우 어두운 톤의 힙합 고트는 2006년부터 2008년 미국을 중심으로 캐주얼 힙합

패션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 미국 내 거의 모든 힙합 의류 브랜드들은 고트 스타일을 매 시즌 중심 테마로 하여 각 브랜드 특성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힙합 고트 패션은 청소년들부터 30대들에게 메가트렌드를 몰고 왔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청소년기에 고트 스타일 만화를 공유한 세대라는 공통점과 최근 문화코드인 현실도피와 현란함, 괴이함을 강조하는 비주얼 밴드 문화(visual band culture), 뱀파이어를 주제로 한 판타지 그래픽 소설인 「트와일라잇(Twilight)」 시리즈, 「트루 블러드(True Blood)」등이 연결된 부분이기도 하다.

힙합 고트 패션의 인기와 함께 비슷한 이미지의 힙합 타투(hip hop tatto) 패션은 의류, 액세서리, 수영복, 신발 등 다양한 패션 아이템에서 보여지는데, 이는 기존의 반항적, 저항적, 육구불만의 표출로써의 타투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룩으로 창출되고 있다. 특히 타투 이미지 전문 브랜드 에드 하디(Ed Hardy)의 경우 럭셔리 빈티지 브랜드로써 타투를 패션 트렌드화 시키고 있다.

<표 1>은 본 장에서 다룬 2000년대 전후 국외 힙합 패션 트렌드를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 III. 대중문화로서 국내 힙합 패션

힙합 패션은 힙합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요소 중 하나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



<표 1> 2000년대 전·후 국외 힙합 패션 트렌드

분류	힙합 뮤지션	힙합 패션
1970년대	슈거힐 갱	- 슈거힐 갱 음악의 영향으로 힙합 패션이 뉴욕 거리에 등장
1980년대 초·중반	런 디엡씨	- 미 전역의 뮤직비디오 채널 보급으로 힙합 뮤지션들의 힙합패션 대중화 - 아프로 아메리칸 중심 성향과 스포티브 스타일이 혼합된 형태 - 트랙슈트, 라벨이 붙은 후드 티셔츠, 스니커즈, 커다란 안경, 금반지, 금목걸이 등이 유행
1980년대 중·후반	엡씨 해머, 키든 플레이, 엔 더블유 에이, 레프트 아이 어브 티엡씨 등	- 다양한 인종의 힙합 뮤지션들의 성공으로 매우 밝은 컬러 의류, 디키스 팬츠, 플레이드 셔츠와 자켓, 블랙 라이더스 스타터 재킷, 야구 모자, 클락스 신발, 청크 테일러드 스니커즈 등과 같이 스포티하고 다양화된 힙합 패션 아이템들이 공존 - 스포츠 브랜드의 성장 - 스포츠웨어와 스니커즈 시장에서 나이키의 독보적 선점(스포츠힙합 유행과 슈퍼농구스타 마이클조단을 통한 ‘에어조단’ 마케팅 성공)
1990년대	클라이드, 윌 스미스, 제이 지, 셀 콰브스, 엘 엘 쿨 제이, 우탕 클란, 넬 리, 50 센트, 에미넴, 2팩 등	- 힙합 패션이 거대 패션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시기 - 일반적 힙합 패션으로 인식되고 있는 오버사이즈의 스포츠 저지 티셔츠, 배기팬츠, 화려한 액세서리, 스니커즈가 자리 잡은 시기
2000년대	제이 지, 셀 존, 카니에 웨스트, 컴먼, 윌 아이 엠 등	-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실루엣의 슬림화와 모던화 - 스포츠 스타들로부터의 스타일 선호에서 힙합 뮤지션들의 패션 선호로 소비자 취향 변화 - 힙합 패션 변화의 다양화(프리프람, 슬림 포멀 수트, 스컬벤 룩, 힙합 고트, 힙합 타투) - 믹스 앤드 매치 스타일

르게 나타났지만, 2000년 전후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스타일의 믹스 앤드 매치, 미니멀해지고 슬림해지는 힙합 패션 트렌드의 움직임은 국내 힙합 패션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진다. 힙합이라는 문화 코드는 점점 더 강한 독창성과 이미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힙합 패션에 있어서 스타 힙합 뮤지션들의 역할은 상업성, 대중성을 위한 강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내 힙합 패션 트렌드의 도입, 변천 과정을 2000년 전후 시기별로 나누어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힙합 패션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힙합 뮤지션들의 스타일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1. 2000년대 이전의 국내 힙합 패션

1980년대 후반 국내 가요의 주류적 흐름으로

등장한 댄스음악은 1990년대가 되면서 힙합 스타일의 음악 장르로 연결된다. 1990년대 초반 국내 대중들에게 처음 선보인 힙합문화는 현진영의 음악과 패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진영이 무대에서 선보인 드럼(drum) 스타일의 팬츠와 컬러풀한 후드 티는 당시 사회적 주된 이슈중의 하나였던 신세대 문화의 등장과도 함께 한다. 문화적인 감각을 가지고 기성세대에 반하며 자유로움, 파격성, 일탈성을 자유와 도전의 의미로 표현하였던 10대의 신세대 문화는 힙합에서 표현하는 랩을 그들의 언어로 사용하며 그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욕구를 분출하였다. 현진영 이후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은 국내 정서에 적합한 힙합을 발전시키며, 국내 대중문화 속에서 힙합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이끌어낸다. 도저히 조화될 수 없어보였던 랩과 한국어를 접목해 낸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는 우리말의 분절구조를 파괴하면서도



<그림 17> 서태지와 아이들 힙합패션, 1992년  
(출처: <http://imagesearch.naver.com>)



<그림 18> 스포츠 힙합 패션, 1996년  
(출처: <http://imagesearch.naver.com>)

우리 신세대들의 감각에 맞는 언어세계를 보여주었다.<sup>19)</sup> 1990년대 초·중반의 국내 힙합 패션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의상으로 대표될 수 있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힙합 의상은 오버사이즈라는 공식을 국내에 처음 선보인 시기이다. 당시 이들이 착용하였던 아이템들은 접어 올린 7부 바지, 떼어내지 않은 테그(tag), 복잡한 프린트 혹은 원색의 빅 사이즈 티셔츠, 커다란 버튼다운 체크 셔츠, 통이 넓은 힙합 팬츠가 있으며 레게 헤어스타일, 병거지모자, 헤어밴드, 실버 귀걸이와 목걸이, 큰 사이즈 스니커즈의 액세서리로 대표된다<그림 17>.

1990년대 중·후반의 국내 힙합 패션은 초기 힙합 의상과는 많은 변화를 가지는데, 정통 힙합 스타일과 실용성이 공존하는 스포츠웨어와 힙합을 섞은 스타일로 대표된다. 당시 세계적 열풍을 몰고 온 엔비에이(NBA), 스케이트보드, 거리 농구 등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정통 힙합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신체사이즈보다 험렁한 옷과 큰 신발로 스타일링하며 힙합의 자유로운 정신과 스포츠의 기능성을 표현하였고, 스포츠의 영향으로 부드럽고 가벼운 폴리와 나일론 소재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액티브 스포츠 웨어, 스포츠 유니폼 스타일, 트레이닝복이 힙합 패션에 적용되었고, 착용 방법과 형태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착장을 하였다. 디제이 디오씨(DJ. DOC)의 경우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힙합 패션으로 응용, 착장하는 대표적인 뮤지션으로 한쪽을 걸어 올린 팬츠, 스니커

즈, 땀을 닦기 위한 수건을 머리에 두건처럼 액세서리화하며 그들만의 스포츠 힙합 패션을 연출하였다<그림 18>. 또한 엔비에이 리그룩이나, 스트리트 컬처(street culture)와 스포츠에 기초한 어번 스포츠 캐주얼(urban sports casual)룩은 활동적이고 스포티한 감각을 표현하였는데, 국내 제일모직의 투자에 의해 미국에서 런칭된 브랜드 후부는 국내에서도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1995년 서태지와 아이들 4집에서 유행시킨 스노우보드복과 오버사이즈 힙합 패션의 결합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전례없는 새로운 힙합 스타일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멤버 이주노가 착용한 흰색 마스크는 당시 10대들의 무언의 항변을 패션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풀어내는 것으로 문화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그림 19>.

1990년대 중·후반의 국내 힙합 패션을 대표하는 힙합 뮤지션으로는 주석, 업타운, 윈타임, 지누션, 듀스, 디제이 디오씨, 드렁큰 타이거 등이 있으며 힙합 장르의 음악을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힙합 패션을 추구한 뮤지션으로는 HOT, 잭스키스가 있다. 이들 공통점은 상하 모두 오버 사이즈의 드림 스타일 착장으로 커다란 후드 티셔츠, 박스형의 점퍼, 엉덩이에 걸친 허리 36인치 이상의 드림 팬츠, 길게 늘어뜨린 벨트, 뒤집어쓴 모자, 큰 사이즈의 스니커즈를 매치하였다<그림 20>. 예전에는 TV를 통해 공개된 연예인의 옷차림은 일반 시청자에게는 다른 세계의 의복 역할에 따른 옷차림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이 시기를 기점으로 청소



<그림 19> 스노우보드 힙합패션, 1995년  
(출처: <http://imagesearch.naver.com>)

<그림 20> HOT, 원타임, 듀스, 1990년 중·후반  
(출처: <http://imagesearch.naver.com>)

년들은 이를 동일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과격적이고 과장된 무대 패션을 청소년들의 패션을 통해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기 시작하였으며,<sup>20)</sup> 이는 국내 힙합 패션의 적극적인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표 2>는 본 장에서 다룬 2000년대 이전 국내 힙합 패션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 2. 2000년대 이후의 국내 힙합 패션

대중음악은 오늘날 대중의 생활감정을 표현하는 단순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한 사회 한국가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그리고 사회성원의 가치성향과 행동양식을 규정해 주고 있다.<sup>21)</sup> 이 중 힙합은 사회로부터 소외에 대한 저항, 억압된 내면의식과 환경으로부터 기인한 문제들, 모순들에 대한 투쟁과 해법을 패션에 반영하며 시작하였

으나, 문화적 요소들이 같은 의미를 가지더라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처럼 힙합 음악, 힙합 패션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중매체의 발전, 중산층의 생활 향상, 의식 변화 등으로 힙합은 좀 더 고급문화로 발전하였으며, 힙합 패션 또한 힙합 뮤지션들의 대중적 스타로의 탄생으로 이전의 저항적인 모습에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스타일로 거듭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힙합 패션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실루엣의 변화이다. 드림 스타일의 크고 헐렁한 의복이 일반적인 힙합 패션으로 인식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슬리머 실루엣으로 힙합 패션은 큰 변화를 보인다. 2000년대 이후 가장 두드러지며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슬리머 실루엣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와 국내 힙합 패션을 리드하는 국내 힙합 뮤지션들의 패션 트렌드들을 종합, 분석하였고, 김윤(2010)<sup>22)</sup>의 힙합 패션 트렌드 연구에 고찰, 근거 본 논문 연구에

<표 2> 2000년대 이전 국내 힙합 패션의 시기별 특징

분류	힙합 뮤지션	힙합 패션
1990년대 초·중반	현진영, 서태지와 아이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세대 문화를 대변하며 국내 대중들에게 처음 선보이기 시작 (서태지와 아이들 패션으로 대표 됨)</li> <li>- 접어 올린 7부 바지, 패어내지 않은 테그, 복잡한 프린트 또는 원색의 빅 사이즈 티와 버튼다운 체크 셔츠, 배기팬츠, 병거지모자, 헤어 밴드, 실버 귀걸이와 목걸이, 커다란 스니커즈 등이 유행</li> </ul>
1990년대 중·후반	주석, 업타운, 원타임, 듀스, 지누션, 디제이 디오씨, 서태지와 아이들, 드렁큰 타이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통 힙합과 스포츠웨어 힙합이 혼합된 스타일</li> <li>- 스트리트 컬처와 스포티한 감각의 어반 스포츠 캐주얼룩 성장</li> <li>- 드림 스타일 후드 티와 팬츠, 박스형의 점퍼, 길게 늘어뜨린 벨트, 뒤집어쓴 모자, 큰 사이즈의 스니커즈 등이 인기</li> <li>- 청소년들의 연예인 패션 수용(힙합패션의 적극적인 대중화)</li> </ul>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프리프합(pre-hop), 슬림 포멀 수트(slim formal suit), 스트리트 캐주얼 힙합(street casual hip-hop), 세미 힙합(semi hip-hop)의 4가지 트렌드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 프리프합(pre-hop)

프리프합은 힙합의 감성과 힙합 스타일에 아가일 스웨터(argyle sweaters), 치노 팬츠(chinos), 마드라스(madras-seersucker의 일종), 버튼 다운 셔츠(button down oxford shirts), 보트 슈즈(boat shoes)로 대표되는 프리피 록의 믹스 앤드 매치를 뜻한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여러 문화가 동시에 나열되고 보여지는 현재의 다원적인 스타일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나타난 힙합 패션 스타일 중 슬림한 힙합 패션과 믹스 앤드 매치를 가장 잘 활용한 스타일로, 과거 저항적이기만 했던 힙합 패션의 이미지를 좀 더 고급스럽고 지적인 이미지로 변환하는데 성공한 대표적 스타일이다.

국내 힙합 뮤지션들 중 꾸준히 프리프합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뮤지션으로는 다이نام믹 듀오, 슈프림 팀, 에픽하이 등이 있다. 이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대중성과 장르의 다양성을 가진 힙합 음악과 같은 힙합 패션을 표현하는데, 프리프합 스타일을 추구하는 해외 뮤지션인 카니에 웨스트, 제이 지, 디디, 나시르 존스와 비교하였을 때 이들의 정통적 프리피록에 가까운 프리프합 스타일보다는 좀 더 대중적이며 캐주얼한 믹스 앤드 매치를 이룬다. 국내 뮤지션들의 프리프합은 힙합의 기본 정신인 자유로운 감성을 더 표현하고 있는데, 청바지에 셔츠, 티셔츠, 자켓, 베스트 등을 기본 스타일로 하며 스니커즈, 중절모, 캐주얼 넥타이 등의 액세서리를 한국적 정서에 맞게 믹스 앤드 매치하여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며 변화가 있는 프리프합을 연출한다<그림 21>, <그림 22>. 컬러에 있어서도 밝은 컬러보다는 무채색 혹은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할 수 있는 내추럴한 컬러들을 선호하며, 밝은 컬러의 경우 포인트로 이용하여 아이템들과 조화를 이룬다.

리의 경우 포인트로 이용하여 아이템들과 조화를 이룬다.



<그림 21> 프리프합, 다이نام믹 듀오, 2011년  
(출처: <http://imgv.search.daum.net>)



<그림 22> 프리프합, 에픽하이, 2011년  
(출처: <http://imgv.search.daum.net>)

2) 슬림 포멀 수트(slim formal suit)

힙합 패션에 있어서 정장(suit) 힙합 스타일의 유래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재즈스타일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이는 과거 아프로 아메리칸들이 가지지 못한 부를 과시적으로 표현하려 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재즈 스타일에는 하위계층이었던 아프로 아메리칸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백인과 동화된 외모를 표출하기 위함과 동시에 아프로 아메리칸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욕구가 존재하는데, 그들의 패션에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들이 지금 처해진 어두운 상황 안에서 상위문화에 동화됨으로써 소극적인 저항을 하였다.<sup>23)</sup> 다른 유래는 1990년대 초반 이스트 코스트의 힙합 패션으로, 이는 이미 1930년대와 1940년대의 갱스터스의 갱스터 록의 힙합 패션을 차용한 것이다. 이는 이스트 코스트, 게토지역의 전설적인



<그림 23> 슬림 포멀 수트, 바비킴, 2012년  
(출처: <http://imgv.search.daum.net>)



<그림 24> 슬림 포멀 수트, 리쌍, 2011년  
(출처: <http://www.jungleent.com>)



<그림 25> 슬림 포멀 수트, 지누션, 2007년  
(출처: <http://media.daum.net/entertain>)

패션으로 기록되는데, 2000년대 이후 선 존의 슬림 핏 수트의 성장 바탕이기도 하다.<sup>24)</sup> 이러한 정장 힙합 스타일은 2000년대 전후로 점점 더 슬림한 테일러드 수트로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스포츠 스타에 대한 추종과 함께 그들이 입었던 유니폼과 같은 오버사이즈의 의류가 대중 힙합 패션의 주된 방향이었지만, 2000년대 전후 힙합 패션은 뮤직비디오, 시상식, 영화 등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스타 힙합 뮤지션들의 착용, 즉 슬림 수트 패션 쪽으로 관심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지적이고 세련된 도시적인 이미지 추구하고 수트를 이용한 신분상승의 기대를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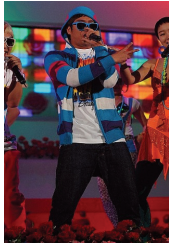
슬림 포멀 수트 스타일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내 힙합 뮤지션으로는 바비킴, 지누션, 타이거 JK 등이 있다. 바비킴의 경우 힙합과 소울음악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그의 음악에 따라 프리프롭과 슬림 포멀 수트로 스타일의 변화를 추구하는 편으로, 소울 창법을 많이 사용하는 바비킴의 패션은 재즈 스타일과 좀 더 연관된 슬림 포멀 수트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블랙과 화이트 모노톤의 수트에 중절모, 안경, 선글라스와 같은 액세서리를 착용하며 모던함과 심플함의 힙합 스타일을 연출한다<그림 23>. 리쌍은 블랙의 슬림 포멀 수트를 착용하며 무게감있는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1990년대 초중반의 갱스터 룩의 수트에서 차용한 듯한 선글라스, 금목걸이와 같은 화려한 주얼리, 중절모 등으로 과시적이며 세련된 수트 라인을 보여준다

<그림 24>. 타이거 JK의 경우 드렁큰 타이거 활동 시와는 많이 다른 모습의 스타일링을 보여준다. 90년대 중후반에 활동한 드렁큰 타이거는 스포티한 세미 힙합 스타일을 추구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무채색에 모던한 스타일의 슬림 포멀 수트의 착용을 주로 한다. 힙합 가수 중 70만 장의 최다 앨범 판매량 기록을 가지고 있는 지누션의 경우 2000년대 이후 활동에서는 액세서리를 거의 배제한 모던하고 슬림한 블랙과 화이트 모노톤의 포멀 수트를 착용하였으나<그림 25>, 1990년대 중후반 활동에서는 세미 힙합의 느낌이 강한 스포츠 캐주얼 힙합을 추구 하였다.

1990년대부터 활동한 힙합 가수들이 2000년대 이후로 음악 활동을 계속하면서 힙합 패션 추구 경향이 슬림 포멀 수트로 변화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힙합 음악이 여러 장르와의 혼합을 시도하고 좀 더 다양화, 대중화되면서 뮤지션들의 힙합 패션 스타일 또한 힙합 문화와 시대의 변화에 따르고 세계적 패션 트렌드를 추구하는 것이며,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뮤지션들의 경우 팬층의 변화와 빠른 유행의 흐름을 가지는 한국 정서에 부합하여 더 이상 과거 힙합 스타일의 고수가 힘들어진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이다.

### 3) 스트리트 캐주얼 힙합(street casual hip-hop)

문화적 다양성이 서로 혼합되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퓨전 현상은 2000년대 이후 힙합 패션에서 힙합과 다른 패션 룩, 스포츠와 스트리트 캐



<그림 26> 스트리트 캐주얼 힙합,  
엠씨 몽, 2008년  
(출처: <http://imgv.search.daum.net>)



<그림 27> 스트리트 캐주얼 힙합,  
은지원, 2011년  
(출처: <http://media.daum.net/entertain>)



<그림 28> 스트리트 캐주얼 힙합,  
허니패밀리, 2010년  
(출처: <http://image.search.naver.com>)

주얼과의 만남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2000년  
대 이후 스포츠 캐주얼과 스트리트 힙합 패션의  
결합으로 대중적 트렌드를 이끈 대표적 스타일로  
서, 스کیل번 록을 들 수 있다. 이는 MTV 월드를 통  
하여 프로 스케이터 테리 케네디(Terry Kennedy)가  
이끄는 아프로 아메리칸 스케이터 팀 창단과 함께  
스کیل번 록이라는 새로운 스타일링이 시작되었으  
며, 스포츠 전문 채널 이에스피엔(ESPN)을 통하여  
스کیل번 록을 입은 스케이터들의 쇼가 방송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국내의 경우 스포츠 캐주얼의 비중보다는 스트  
리트 일반 캐주얼에 가까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  
다. 대표적인 국내 뮤지션으로는 엠씨 몽(MC.  
Mong), 은지원, 허니패밀리 등이 있으며<그림 26>,  
<그림 27>, <그림 28>, 밝고 강렬한 컬러배합을 중  
심으로 한 스트리트 캐주얼 힙합 스타일을 추구한  
다. 후드 티셔츠, 티셔츠, 야구 점퍼, 체크무늬 우  
븐 셔츠, 워싱(washing)이 강하게 표현된 데님 팬  
츠, 컬러풀한 스니커즈와 트러커 캡 등으로 스타  
일되며, 다양한 그라피티와 강한 컬러, 다양한 패  
턴, 캐릭터를 주로 사용한다. 스트리트 캐주얼 힙  
합의 경우 강한 이미지가 뚜렷하게 표현되는 정통  
힙합 레이블보다는 영 캐주얼 스타일에 가까운 이  
미지로 대중적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국내 브랜드  
로는 후부와 힙합 그룹 지누션의 ‘션’이 런칭한  
엠에프(MF: Majah Flavah), 엠씨 몽이 즐겨 입으면

서 국내 소비자층을 형성한 일본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베이프(A Bathing Ape: Bape)가 대표적이  
다. 후부의 경우 국가적으로 다른 힙합 정서와 힙  
합문화의 대중화 정도 차이를 감안하여 미국과 한  
국의 차별화된 디자인 전개를 이루고 있으며, 정  
통 힙합으로 공략하는 미국 레이블보다는 좀 더  
캐주얼한 디자인을 국내에서 전개한다. 엠에프는  
힙합 뮤지션이 직접 설립한 브랜드답게 92년 런칭  
당시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는 좀 더 정통 힙합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스트리트  
캐주얼로의 이미지 전환을 이루며 좀 더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그림 29>.



<그림 29> 스트리트 캐주얼 힙합, 엠에프, 2011년  
(출처: <http://www.mf.co.kr>)

#### 4) 세미 힙합(semi hip-hop)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강한 트렌드로 나타난  
힙합 음악의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은 힙합 패션에  
있어서도 거칠고 공격적인 힙합의 정통성 추구보

다는 패션 트렌드와의 결합을 통하여 대중 패션으로 발전,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스타일로 진보하고 있다. 힙합 음악은 락(rock), 테크노(techno), 알앤비(R&B), 댄스음악과 결합하며 음악적 장르의 변화를 추구, 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게 되었고 주류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세미 힙합은 힙합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르면서도, 힙합 고유의 진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성이 다른 힙합 스타일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아프로 아메리칸들의 정통 힙합스타일을 무조건 강조하기 보다는 활동적이고 스포티하며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세미힙합은 전체적으로 착장 시 여유로운 실루엣의 힙합 스타일은 고수하면서도 슬리머 실루엣 트렌드를 따르며, 1990년대 초반 유행했던 드림스타일과 같이 전반적인 오버사이즈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세미 힙합 스타일의 중심에서 보여지는 것 중의 하나는 빈티지 패션으로 고트와 타투를 중심으로 하여 어둡고 과장되어 보이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주로 프린트 기법으로 표현되고 메탈 리벳(metal rivet), 페이브릭 등으로 디테일을 장식하는데, 국내 세미 힙합 패션도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에 부합하며 고트, 타투 이미지의 그래픽 프린트를 주로 사용한다.

2000년대 이후 한국적 세미 힙합 패션을 추구하는 국내 뮤지션으로는 드렁큰 타이거, 양동근(YDG), 크라운 J 등이 있다. 힙합의 기본 스타일은 살리면서도 대중화되고 세련된 빈티지 캐주얼로의 접근에 성공한 세미 힙합 패션은 편안한 핏의 데님 팬츠 혹은 코튼 팬츠에 적당히 몸에 피트되는 빈티지 먼 티셔츠, 슬리브리스 티셔츠, 화려하고 럭셔리함을 강조하는 금 목걸이, 선글라스, 모자, 문신 등으로 연출한다. 세미 힙합은 2000년대 이후 보여지는 다른 힙합 패션 스타일들보다 좀 더 남성적이고 저항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힙합의 느낌은 고수하지만 전형적인 힙합의 틀은

벗어나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30>, <그림 31>.



<그림 30> 세미 힙합, 드렁큰 타이거, 2009년  
(출처: <http://www.dt-love.co.kr>)



<그림 31> 세미 힙합, 크라운 J, 2010년  
(출처: <http://imgv.search.daum.net>)

<표 3>는 본 연구에서 다룬 2000년대 이후 국내 힙합 패션 트렌드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 IV. 결론

현대 사회에서 대중문화는 하나의 정형화된 스타일로 국한되어 발전하지 않으며 대중들에 의하여 독특한 방향으로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대중문화가 라이프스타일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존 문화와 차별성을 가지고 하위문화에서 대중문화로 이동, 발전과 트렌드라는 공통점을 가진 힙합과 힙합 패션은 그 변화를 함께하

〈표 3〉 2000년대 이후 국내 힙합 패션 트렌드 유형 특징

분류	힙합 뮤지션	힙합 패션
프리프합	다이내믹 듀오, 슈프림 팀, 에픽하이 등	- 2000년대 이후 힙합 패션 스타일 중 믹스 앤드 매치를 가장 잘 활용 - 미국과 비교하였을때, 한국적 정서를 고려하여 좀 더 편안하고 대중적이며 캐주얼 함 - 밝은 컬러보다는 무채색 혹은 내추럴한 컬러들을 선호
슬림 포멀 슈트	바비킴, 지누션, 타이거 JK 등	- 점점 더 슬림한 포멀 테일러드 슈트로의 전환(지적이고 세련된 도시적 이미지 추구) - 모노톤 슈트를 기본으로 중절모, 안경, 선글라스, 화려한 주얼리 등 뮤지션 개성에 맞는 스타일 연출
스트리트 캐주얼 힙합	엠씨 몽, 은지원, 허니패밀리 등	- 스케이트보드룩(세미 스포츠룩)에 기반한 미국의 스킵번 룩보다는 밝고 강렬한 컬러배합을 중심으로 일반 캐주얼에 가까운 스트리트 일반 캐주얼 힙합 추구 - 후드 티셔츠, 티셔츠, 야구 점퍼, 체크 우븐 셔츠, 워싱턴 데님팬츠, 컬러풀한 스니커즈와 트럭커 캡 등으로 코디되며, 다양한 그라피티와 강한 컬러, 다양한 패턴, 캐릭터 사용
세미 힙합	드렁큰 타이거, 양동근, 크라운 J 등	- 힙합의 기본 스타일을 지키며 대중화되고 세련된 빈티지 캐주얼 추구 - 세계적 트렌드인 고트, 타투 이미지의 그래픽 프린트 사용 - 2000년대 이후 다른 힙합 스타일들보다 좀 더 남성적이고 저항적인 이미지 강조
2000년대 이후 국내의 힙합 패션의 여러 스타일들에서의 공통적 특징은 실루엣의 슬림화		

며 글로벌화에 성공하였으며, 힙합 패션은 힙합 음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만큼 힙합 뮤지션들의 패션 스타일은 힙합 패션을 창조하고 리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문화에서 대중문화로 자리잡은 힙합의 발생과 특징을 살펴보고, 1970년대 발생 이후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어나온 국외 힙합 패션의 전반적인 개념과 함께, 미적 가치 전환과 새로운 패션으로의 방향성을 보이는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국내 힙합 패션 변화를 국내 힙합 뮤지션들의 패션 스타일 변화과정과 특징을 유형별로 분류해 각 스타일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70~1980년대 중반의 힙합 패션은 발생지인 뉴욕을 기점으로 한 아프로 아메리칸 중심의 레게와 스포티브 스타일이 혼란된 형태라 할 수 있으며, 80년대 엠티비 방송으로 힙합 뮤직과 힙합 패션의 글로벌화가 시작되었다. 미국 내 아프로 아메리칸들의 하위문화 패션이 전 세계 청소년들

에게 트렌디한 패션 스타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1984년 나이키는 농구 스타 마이클 조단을 상품과 마케팅에 영입하여 1990년대 초반까지 도시적 스포츠 스트리트웨어와 스니커즈 시장을 독점하며 스포츠 스타일의 힙합을 유행시킨다. 1990년대 초반은 갱스터 룩의 힙합 패션이 유행하였으며, 이는 2000년대 이후 슬림 핏 슈트 유행의 기원이다. 1990년대 이후 많은 힙합 뮤지션들은 음악적 개성을 추구하며 자신의 의류 브랜드를 설립하였으며, 이 시기는 힙합 패션이 거대 패션 비즈니스로 자리매김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2000년대 이후 미디어 매체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한 글로벌화로 인한 여러 문화들과의 빠른 접촉은 다양한 힙합 패션의 세분화를 이끌어 내었다. 힙합 패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진 현상은 실루엣이 슬림해지는 변화이며, 힙합 뮤지션 카니에 웨스트, 제이 지, 션 콤브스, 컴먼, 뉴 보이즈, 윌 아이 엠에 의하여 슬리머 핏은 급속도로 힙합 패션에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이후 슬리머 실루엣을 공통적 특징으로 가지는 힙합 패션은 프리프



힙, 슬림 포멀 수트, 스컬번, 힙합 고트, 힙합 타투로 분류될 수 있다. 힙합의 감성과 스타일에 프리피 룩을 결합한 프리프합은 밝은 컬러의 폴로셔츠, 브이 네크라인의 셔츠 또는 스웨터, 자켓, 블레이저를 함께 입는 것으로 이전 힙합 패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스타일이며, 다원화 되는 사회 문화 속에서 힙합 패션의 소재, 컬러,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믹스 앤드 매치되고 있다. 다른 힙합 패션으로 슬림한 테일러드 수트가 있으며, 뮤지션이자 자신들의 브랜드를 런칭한 제이 지와 선 콤브스의 스타일로 대표된다. 과거 스포츠 스타들 중심이었던 오버사이즈룩의 대중 힙합 패션 트렌드는 현재 힙합 뮤지션들의 슬림 포멀 수트 패션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뮤직비디오와 고등 교육으로 인하여 파생되어진 높은 수준의 직업 환경 등이 그 이유이다. 스컬번은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스케이터들의 룩과 힙합 패션과의 조합으로 힙합 패션이 도시화와 결합되어진 독특한 스타일의 어우러짐이다. 짧은 길이 티셔츠, 매우 밝은 컬러와 반복되는 패턴의 후디, 릴렉스 핏의 슬리머 진, 유명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의 로고 사용, 체인 장식된 지갑, 트럭커 캡, 컬러풀한 스니커즈들로 구성되며 대중적 성공을 이룬 스타일이다. 프린트 기법을 주로 사용하여 그린지, 해골, 악마, 영웅과도 같은 어둡고 과장된 이미지를 표현하는 힙합 고트 패션은 빈티지 패션의 유행과 함께 등장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8년을 중심으로 캐주얼 힙합 패션의 메가 트렌드였다. 현란함과 괴이함을 추구하는 비주얼 밴드, 판타지 그래픽 소설인 트와일라잇 시리즈, 트루블러드와 같은 최근 문화 코드와 결합되어 나타났으며, 힙합 타투 패션은 기존의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이미지가 아닌 고급 브랜드로써 타투의 이미지를 패션 트렌드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의 영향을 받은 2000년대 이후 국내 힙합 패션스타일을 알아보기에 앞서 국내에 힙합이 도입된 시기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의 힙

합 패션 성장, 발전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 초반 국내에 처음 선보인 힙합 문화는 신세대 문화와 함께 가수 현진영의 음악과 패션에서 시작되었고, 92년 서태지와 아이들로 인해 힙합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다. 1990년대 초·중반의 국내 힙합 패션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의상으로 대표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힙합 의상은 오버사이즈라는 개념을 처음 선보인 시기이다. 1990년대 중·후반의 국내 힙합 패션은 스포츠웨어와 힙합을 섞은 스포츠 힙합 패션으로 대표된다. NBA 리그룩, 어번 스포츠 캐주얼룩은 큰 사이즈의 헐렁한 옷으로 편안하고 활동적이며 스포티한 감각을 표현하였고 스포츠의 기능성을 추구하였으며, 1995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스노우보드복 힙합 패션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창조적인 힙합 패션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시기부터 대중들은 연예인의 옷차림을 수용,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 시작하는 적극적인 대중성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본 연구에서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국내 힙합 패션을 분석한 결과 프리프합, 슬림 포멀 수트, 스트리트 캐주얼 힙합, 세미 힙합의 4가지 트렌드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프리프합’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큰 트렌드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힙합 감성과 스타일에 프리피 룩을 믹스 앤드 매치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나타난 힙합 패션 스타일 중 슬림한 힙합 패션과 믹스 앤드 매치를 가장 잘 활용한 스타일이며, 현재의 다원적인 문화현상과 부합된다. 과거 저항적인 힙합 패션 이미지를 고급스럽고 지적인 이미지로 변환하는데 성공한 대표적인 스타일로서, 미국의 프리프합과 다른점은 한국적 정서를 감안하여 무채색 혹은 내추럴한 컬러들을 좀 더 많이 사용하며 좀 더 대중적이며 자유롭고 캐주얼하게 연출하는 것이다.

둘째, ‘슬림 포멀 슈트’는 힙합 뮤지션들의 슈트 착용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지적이고 세련된 도시적인 이미지와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려는 연출에서부터 발전된 스타일이다. 대체적으로 블랙과 화이트 모노톤의 세련된 슬림 포멀 슈트에 중절모나 안경, 선글라스와 같은 액세서리를 착용하여 스타일을 연출한다.

셋째, ‘스트리트 캐주얼 힙합’은 영 캐주얼 스타일에 가까운 이미지의 연출로써, 스포츠 캐주얼과 스트리트 힙합 패션이 결합된 미국의 스컬번룩에 가까운 스타일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스포츠 캐주얼 비중이 큰 스컬번룩은 달리 일반 캐주얼에 가까운 스트리트 캐주얼 힙합 스타일을 추구한다.

넷째, ‘세미 힙합’은 아프로 아메리칸들의 정통 힙합스타일을 무조건 강조하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 활동적이고 스포티하며,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스타일이다. 대중화되고 세련된 빈티지 캐주얼을 보이는 세미 힙합은, 세계적 트렌드인 고트, 타투 이미지의 그래픽 프린트가 주로 사용되며, 좀 더 남성적이고 저항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연구에서 국내 힙합 패션은 힙합 음악이라는 한 장르 속에서 정형화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고 뮤지션들의 다양한 음악적 성향이나 타 장르 음악과의 접목에 따라 패션 스타일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원화되고 무정형화 되어진 패션의 틀에서 여러 힙합 패션은 어떠한 스타일이든지 간에 힙합 뮤지션들이 착용하였을 때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힙합 패션으로서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전의 힙합 패션은 스포티한 스타일과 오버사이즈 실루엣, 컬러풀한 컬러 배색 스타일로 대표되며, 하위문화 패션에서 대중적인 힙합 패션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등 국외와 국내 모두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00년대 이후 국내외의 힙합 패션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여러 문화 요

소들과 함께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스타일링으로의 구축을 시작하며 더욱 대중화되었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슬림한 핏으로의 전환과 더 이상 하위문화의 저항적 패션이 아닌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며 힙합정신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점이며, 이러한 특징은 국내 힙합 뮤지션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국내 힙합 패션은 글로벌 대중문화로의 빠른 접촉을 통해 국외의 힙합 스타일을 빠르게 수용하고 있었으나, 대중화에 따른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국내 문화의 현실과 대중들의 정서에 맞추어 진화시킨 스타일을 창출해내고 있었다. 국내 힙합 뮤지션의 경우 매 시즌 음반 발매에 따라 패션 스타일링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는 국외의 뮤지션들보다 더 많이 스타일링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를 감안할 때 국내 힙합 뮤지션들의 패션이 뮤지션 자체의 개성보다는 시기별 음반에 따른 음악적 개성 표현에 더 주력하는 경향이 있어서 뮤지션 대표 힙합 이미지를 정의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중문화로서 힙합 패션에 관한 연구로 실제적으로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많은 힙합 뮤지션들의 힙합 패션에 대한 연구는 배제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힙합 패션 전체 연구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1970년대 힙합 패션 발생 후 현재까지 변화하고 있는 힙합 패션 중 2000년대 이후 미국 힙합 트렌드와 국내 힙합 패션 트렌드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국내 힙합 패션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힙합 뮤지션들의 패션과 패션 브랜드, 대중매체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두드러지게 언급되는 국내 힙합 패션 트렌드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이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국내의 힙합 패션은 국내 정서와 세계적인 트렌드 흐름, 여러 문화요소들과 함께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타일적 특징은 다른 음악 장르의 분석 연구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앞으로의 새로운 힙합 패션 스타일의 예측뿐만이 아닌 포괄적인 패션 트렌드의 변화를 예측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김서연, 박길순, 정현숙 (2001). 힙합의 문화적 성격과 관련한 힙합 패션의 특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9(5), pp.747-758.
- 2) 이인성, 이순자, 최보영, 이민정, 손이정 (2006). 힙합 뮤지션의 패션 스타일 연구: 흑인 뮤지션 스타와 국내 힙합 뮤지션의 비교 연구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1), pp.127-136.
- 3) Stephens, G. (1992). International dialogue in rap music, call and response in a multicultural style, New Formations, 16(-), pp.62-79.
- 4) Blanchard, B. (1999). The Social Significance of Rap & Hip-Hop Culture, Journal of Poverty & Prejudice, Spring.
- 5) en.wikipedia(검색어: hip hop), retrieved 2012. 1. 23. [http://en.wikipedia.org/wiki/Hip\\_hop](http://en.wikipedia.org/wiki/Hip_hop)
- 6) 장정임, 안민영, 이연희 (2006). 바스키아 회화를 응용한 힙합웨어 디자인, 복식문화연구, 14(1), pp.155.
- 7) Hilburn, R. (1998. 12. 27). Pop Music; In the Shadow of Hip-Hop: Rap is where the Action is, and its Popularity Still Hasn't Peaked, The Los Angeles Times, retrieved 2012. 1. 17. <http://articles.latimes.com/1998/dec/27/entertainment/ca-57817>
- 8) ko.wikipedia(검색어: 얼터너티브 힙합), 자료검색일 2012. 1. 16. <http://ko.wikipedia.org>
- 9) 최민영 (2004. 10. 24). 힙합의 진화 대중문화 장악하다, 경향신문, 자료검색일 2012. 1. 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32&aid=0000090510>
- 10) Black style Now (2006. 9. 9). Museum of the city of the New York, retrieved 2011. 12. 20. <http://www.mcny.org/sidebars/press-release-black-style-now---african-american-style-and-hip-hop-fashion.html>
- 11) Pohemus, T. (1994). Streetstyle. London: Thames and Hudson Inc, p.108.
- 12) Black style Now. (2006. 9. 9). Museum of the city of the New York, retrieved 2011. 12. 20. <http://www.mcny.org/sidebars/press-release-black-style-now---african-american-style-and-hip-hop-fashion.html>
- 13) Hip Hop Fashion Posted. (2008. 9. 11). www.articlesbase.com, retrieved 2010. 12. 12. [www.articlesbase.com, retrieved 2010. 12. 12. www.articlesbase.com/fashion-articles/hip-hop-fashion](http://www.articlesbase.com/fashion-articles/hip-hop-fashion)
- 14) Jackson P. (2007. 6. 18). The strong Waistband of the 1970s, BBC News, retrieved 2012. 1. 6. <http://news.bbc.co.uk/2/hi/americas/6757527.stm>
- 15) Binkley C. (2007. 7. 19). Plaid Taste, The Return of the Preppy, Wall Street Journal, retrieved 2012. 1.4. <http://online.wsj.com/article/SB118480137879870907.html>
- 16) Winter M. (2004). Interpreting the Influence of Diverse Cultures on Fashion, Human Ecology, 32(1), p.17.
- 17) 김 윤 (2010). 힙합 패션 트렌드에 관한 연구: 2000년대 이후 트렌드를 중심으로, 복식, 60(2), pp.12.
- 18) White T. (2007. 4. 16). Bagging the Baggy for a Slimmer Look, Knight Ridder Tribune Business News, p.1.
- 19) 도규희 (1999). 댄스음악이 10대 패션문화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랩음악과 힙합패션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12(3), pp.97.
- 20) 이지현, 정은숙 (2002). 힙합 패션에 나타난 스타일 연구: 국내외 힙합뮤지션을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6(1), pp.123.
- 21) Peter, E. K. (1979). Music and Society, New York: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p.161.
- 22) 김 윤. 앞의 논문, p.1-19.
- 23) 권혁주 (2000). 랩퍼 패션에 저항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1.
- 24) 김 윤. 앞의 논문, p.7.

# **A Study on Korean Hip-hop Fashion Trends as Popular Culture**

**- Focusing on Cases since 2000 -**

**Kim, Yoon**

The North Face,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aspects of hip-hop, which started as a subculture in the 1970s and became a global popular culture phenomenon, focusing on its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to analyze the chronological changes in hip-hop fashion, which has steadily evolved after its inception, and to compare Korean and overseas hip-hop fashion trends since the 2000s. The method of study used was literature-based research involving classification and analysis using preceding studies, related books and dissertations, and the use of articles posted on internet websites, newspapers, magazines, hip-hop culture websites and related online shopping malls. A survey of musicians and brands and a collection of photos related to hip-hop events were also included, considering that the focus period of the study is from 2000 to the pres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Korean hip-hop fashion from 2000 to the present, four types of fashion trends were identified: prep-hop, slim formal suit, street casual hip-hop and semi hip-hop. First, 'prep-hop' represents a mix and match approach to a preppy look with hip-hop emotions and styles. Second, the 'slim formal suit' trend shows modern and simple hip-hop styles by adding accessories like a soft hat and glasses to a refined slim formal suit with black and white monotone color play. Third, 'street casual hip-hop' is close to street urban casual and pursues a street casual hip-hop style. Fourth, 'semi hip-hop' highlights hip-hop's basic style, showing a popular and luxury vintage casual look and using graphic prints such as goth and tattoo-style prints, which is a global trend. Since 2000, the main characteristics of Korean hip-hop fashion have shifted to a slimmer silhouette and to seeking luxury instead of a defiant image.

Key words: hip-hop fashion, prep-hop, slim formal suit, street casual hip-hop, semi hip-hop